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로 도약하는 완산’

전주시 완산구, 공감소통·맞춤복지·생태환경·생활경제·시민안전 5대 분야 탄탄한 구정 운영 ‘집중’

전주시 완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로 도약하는 완산’을 목표로 정하고 한걸음 더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특히, 시정운영방향과 맞추어 강연경 제를 바탕으로 전주 대변혁을 이루기 위해 도시의 정체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걸음 더 도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19일 신년브리핑을 통하여 2023년도 구정 운영 5대 기본방향과 15개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5대 분야 기본방향은 신뢰와 책임으로 다가가는 ‘공감소통’, 알차고 따뜻한 한희망가득 ‘맞춤복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일상 속 활력넘치는 ‘생활경제’, 촘촘한 예방으로 실

현하는 ‘시민안전’이다.
먼저, 공감소통행정을 위해 한걸음 더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시민이 바라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믿음과 신뢰로 구현한 투명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작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맞춤형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맞춤복지의 위해 체계적이고 든든한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 계층별 더 촘촘한 생활복지 실현,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민·관 협력 복지 공동체 조성이라는 핵심목표를 설정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생활필수품 구호키트 ‘힘 더하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숲’ 조성, 시민 여가공간 생태하천 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특히, 불법투기 스마트 경고관 설치 사업, 은행나무 열매 친환경 결실 제어제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완산구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원, 시민 중심 맞춤형제정 서비스 운영이라는 핵심목표를 추진한다.
더불어기 반시설의 체계적관리로 안전도시 조성,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재해예방체계 구축, 건전하고 올바른

위생문화 정착을 3가지 핵심목표로 삼아 공공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위협 건축물 전환 사전방지를 위한 가설건축물 정보관리제 시행 등으로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행정 추진에 집중할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주정차 위반, 도로 적치물, 불법 광고물 등 고질적인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하고 가치있는 시책 발굴로 새로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탄탄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아영 기자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전북병무청, 3대 가족 현역 복무 등 성실히 마친 가문 신청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모 부·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총 255가문 1337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 또는 전북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227)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해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가문에 대해 정부포상 등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병역명문가 시상식 20주년을 맞아, 기존의 3대를 넘어 1대부터 4대까지 대를 이어 나라사랑을 실천한 ‘4대 병역 명문가’를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설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 이용해요”

우범기 시장, 남부시장서 홍보 활동 펼쳐

전주시는 설 명절 앞두고 경기침체로 힘겨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19일 남부시장을 찾아, 오가는 시민을 상대로 장바구니를 나누고,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어 우 시장은 설 명절 사용할 각종 제수용 먹거리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시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명절 음식과 선물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각 부서별로 20일까지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전통시장 상인회는 설 명

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개방하고, 전통시장별로 각종 행사도 이어간다.
남부시장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설명절 선물세트 할인판매행사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일정 구매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또 수산물 구입 고객 대상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모래내시장, 신중앙시장, 남부시장에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추진한다.
동일 기간에 남부시장에서는 농·축산물 구입 고객 대상으로 한 환급행사도 추진한다.
우범기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상인들에게 활력을 주고 전통시장을 활



우범기 전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19일 남부시장을 찾아, 오가는 시민을 상대로 장바구니를 나누고,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성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전통시장 이용에 많은 시민도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가져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전영배 지회장은 전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올해 사회활동에 동참할 노인 1130여 명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발대식’을 통한 안전·소양 교육을 19일 개최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지역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

공해 경제적 도움 및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경로당급식지원, 한글 육성, 공원환경지원사업, 경로당코디네이터, 지역아동센터사업’ 등 거동 불편 노인을 돌봐주는 청년배움돌봄 등 16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설 명절 맞아 사랑 나눔 실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전북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같은 날 강황수 청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진경찰서 경우회원 이모씨의 집을 방문 위문금과 선물을 전달하며 훈훈한 덕을 보았다.
이어 완산, 덕진, 군산, 익산경찰서 지구대를 방문 설 명절 특별 치안활동에 전념하는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순지경찰관 유가족 4명, 장기투병 경찰관 17명, 경우회원 2명 등 총 23명에게 전북경찰청 직원들이 직접해운 차량의 쏘도리(급여 끝짓 모으기) 등으로 위문금과 과일 등 위문품을 마련해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설 명절 군 장병 노고 위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19일 전주대와 항공대 등을 잇달아 찾아 향토방위를 위해 고향을 찾지 못하는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날 우 시장은 35사단 전주대와 206항공대, 506항공대를 차례로 방문해 설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군 장병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군 장병들의 고마움을 전했다.
또 우 시장은 군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 시 대민지원 등 어려운 고비마다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향토방위와 시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설 명절 임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군 장병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군 부대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